

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 : 시마바라·아마쿠사 잇키

운젠의 지옥 온천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소박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리시탄 순교비입니다.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에 세워진 최초의 비로, 17세기 전반에 운젠에서 고문을 당해 죽은 33명의 기독교인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해 1500년대 후반에 처음 일본에 전해졌는데, 특히 선교사가 처음 도착한 규슈에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630년대까지 기독교는 금지되었고 외국인 선교사는 추방되었으며 많은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곳 운젠에서 자행된 끔찍한 고문은 수많은 잔인한 탄압의 일례에 불과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 기독교인에게는 지옥 온천의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었고 이로 인해 화상이나 병을 앓았으며, 때로는 온천에 던져져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637년 12월, 무거운 과세에 분노한 농민과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 반항자들이 시마바라·아마쿠사 잇키로 알려진 폭동을 일으켜 막부에 대항했습니다. 결국 반란군은 패배했고, 1638년 4월까지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250년 가까이 숨어지내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